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오 현 주

2010년 8월

#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정환

오현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8월

오현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년 8월

< 국문초록 >

##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오 현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본 연구<sup>1)</sup>는 부부 의사소통이 실제로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부 의사소통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5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273명, 아동의 어머니 273명, 아버지 2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부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Hawkins, Weisberg 및 Ray(1977, 1980)가 개발하고 원효중(1984)이 수정, 보완한 후 김인숙(1988), 김요완(2000)이 사용한 10문항의 부부 의사소통 유형 측정 설문을 사용하였고,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Coopersmith(1967)와 Pope, McChale 및 Craighead(1988)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연구개발하고 전승배(2000)가 사용한 총 32문항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WIN 15.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t검증,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의사소통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억제형이나 차단형보다는 친숙형 혹은 분

1) 본 논문은 201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석형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부부간에는 감정표현이 많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폐쇄적인 의사소통 유형은 보다 적게 사용한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보다 차단형과 분석형을, 아내는 남편보다 친숙형을 더 많이 사용해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언어적 표현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보다 불일치하는 경우가 아동의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

셋째, 감정노출 정도에 있어 부부 의사소통 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보다 불일치하는 경우가 아동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

넷째, 남편의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다.

다섯째, 남편의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감정노출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다. 그리고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감정노출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부로서의 역할 또한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3
3. 연구의 제한점 .....	4
<b>II. 이론적 배경</b> .....	5
1. 부부 의사소통 .....	5
1) 의사소통의 개념과 역할 .....	5
2) 부부 의사소통의 역할과 특징 .....	7
3) 부부 의사소통 유형 고찰 .....	9
2. 자아존중감 .....	15
1) 자아존중감의 개념과 역할 .....	15
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정환경에 관한 고찰 .....	16
3) 부부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	19
<b>III. 연구방법</b> .....	22
1. 연구대상 .....	22
2. 연구도구 .....	24
3. 연구절차 .....	27
4. 자료처리 .....	27

<b>IV. 연구결과 및 해석</b> .....	30
1. 부부 의사소통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 비교 .....	30
2. 언어적 표현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	31
3. 감정도출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	33
4.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	34
5.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감정도출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	37
6. 논의 .....	41
<b>V. 요약, 결론 및 제언</b> .....	45
1. 요약 .....	45
2. 결론 .....	47
3. 제언 .....	49
<b>참고문헌</b> .....	50
<b>Abstract</b> .....	61
<b>부록</b> .....	64

## 표 목 차

<표 II-1> 의사소통 유형의 분류 .....	12
<표 III-1> 분석대상(아동) .....	22
<표 III-2> 분석대상(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 .....	23
<표 III-3> 부부 의사소통 유형 설문지의 유형별 해당문항 .....	25
<표 III-4> 자아존중감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	26
<표 III-5> 부부 의사소통 유형 분류 .....	28
<표 IV-1>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 빈도 .....	30
<표 IV-2>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사례수 .....	31
<표 IV-3> 언어적 표현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	32
<표 IV-4> 감정노출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	33
<표 IV-5>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남편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	34
<표 IV-6>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남편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에 대한 다변량분석 .....	35
<표 IV-7>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아내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	36
<표 IV-8>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아내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에 대한 다변량분석 .....	37
<표 IV-9>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남편의 감정노출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	38
<표 IV-10>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남편의 감정노출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에 대한 다변량분석 .....	39
<표 IV-11>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아내의 감정노출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	40
<표 IV-12>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아내의 감정노출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에 대한 다변량분석 .....	4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는 누구나 자녀의 행복을 바란다. 이를 위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고 굴복하기 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며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바라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란다. 행복은 인구학적 환경이나 지적 능력보다는 심리적 안정과 직결되어 있으며(박경애·조은경, 1997)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자아존중감이다(오우섭, 2010).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시키며 인간의 행동과 생활의 적응 문제에 영향을 끼치며 건전한 성격발달과 정신건강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유아나 성인이나 궁극적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높은 자아존중감은 필수적 요건이다(Branden, 1994; Haltiwaner, 1995; 김영숙, 1997, 재인용). 특히 아동기(6세-12세)는 자아존중감의 형성·발달에 있어 결정적 시기(Erickson, 1959; 강나정, 2008, 재인용)로 이 시기의 아동은 주변의 많은 직, 간접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잠재된 능력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갖거나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되며 초등학교시기에 형성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어른으로 성장, 발달하는 과정 중에 커다란 심리적 작용을 한다(신미경, 2008). 그리고 이 시기 아동들이 갖는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은 정도는 시간이 경과해도 상당히 안정되게 유지된다(전귀연, 1984).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가장 결정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보고되는 것은 가족요인이다.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유아기, 아동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가정환경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이은희, 2003; 허정, 2005). 그리고 부부관계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김이겸, 1995; 정화용, 2000; 이은희, 2003; 신미경, 2008). 정화용(2000)은 부모의 삶 자체가 화목한 관계나 갈등의 관계나 하는 것은 부모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를 바

라보는 자녀들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화목한 가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자란 아동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고 했다. 따라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자녀 관계 뿐 아니라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좌우하는 중심변인인(이은희, 2003) 부부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Nick과 Nancy Stinnet, Joe와 Alice Beam(2008)은 부부관계가 뒷전으로 밀리다보면 결혼생활은 실패하기 쉽다고 경고했다. 부부관계가 얼마나 튼튼한가 하는 것이 자녀들의 행복과 안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서로 사랑하는 부모를 볼 수 있는 자녀는 자기가정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안정감을 갖는다고 했다. 여러 연구들(송말희·이정우, 1986; 전길량·김태현, 1988; 이은희, 2003)이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며 이를 지지하고 있다.

결혼만족을 포함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 경제, 성적 문제, 자녀 양육, 학력, 가족관계, 종교, 여가 선용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의사소통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의사소통은 부부관계의 중요한 요소로서 결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조지은, 2005)이며, 가족 구성원 간 모든 의사소통의 기초가 되어 전체가족의 기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흥미, 2003).

부부 의사소통이 가정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다루어왔다.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부 의사소통 유형을 다룬 연구도 부부관계는 상호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쌍을 이루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을 간과하는 연구방법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한 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유형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부관계를 기초로 한 가정환경 변인에 의해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부부관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밝혀진 부부 의사소통 유형을 부부 각자가 아닌 쌍으로 묶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부 의사소통이 실제로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

러한 연구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로서 뿐만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역할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하여 보다 높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의사소통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부부 의사소통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언어적 표현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감정노출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남편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아내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5.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남편의 감정노출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6.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아내의 감정노출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설문지는 총 810쌍(아동 810명, 어머니 810명, 아버지 810명)에게 배포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설문과 응답이 불성실하고 공백이 많은 설문, 아동과 어머니, 아버지 설문 중 하나라도 누락된 설문, 부부 중 한쪽이라도 의사소통 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273쌍(아동 273명, 어머니 273명, 아버지 273명)의 설문만이 선정되어 양적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인 아동의 정서적 문제(학교 내 실제 성적, 교우관계 등) 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셋째, 부부 의사소통 유형을 설문지 형식으로 측정하는 상황에서 부부 상호간의 미묘한 감정의 흐름, 즉 부정적 답안에 대한 우려, 의도적인 긍정적, 부정적 답안, 부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축소되어 보고 될 가능성 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부부 의사소통이 실제로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부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부부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부부 의사소통

#### 1) 의사소통의 개념과 역할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개인의 의도, 생각,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그러한 내용을 전달받음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공동, 공통 또는 공통성을 뜻하는 라틴어 'Communis'가 어원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생각, 의견 또는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 특히 상호간의 이해가 중심개념이 된다(박연호, 1980).

권석만(2009)은 인간관계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간행위의 핵심은 의사소통이며 의사소통 과정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개인행위, 사회구조, 정치행위, 예술창작, 언어와 문화를 비롯한 인간의 관심사를 충분히 탐구할 수 없다(S. W. Littlejohn, 1982; 오경희, 1997, 재인용). 의사소통을 통하여 인간은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랑이라는 대인적 자원을 형성하고 그러한 자원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밀착되고 결속감도 느끼게 된다(오경희, 1997).

의사소통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된다. Adams(1980)에 의하면 의사소통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과 그것을 말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자기표출, 분위기, 표정, 수신자의 편견 등을 포함한다(이창숙·유영주, 1988, 재인용). 차배근(1982)에

의하면 의사소통은 유기체들이 신호를 통하여 서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의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이다. 최창섭(1993)은 의사소통이란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와 지식, 정보, 의견, 신념, 감정, 경험 등을 공유 또는 나누어 갖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Bienvenu(1970)는 의사소통을 언어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 얼굴 표정, 제스처와 그 외 사람들이 의미를 주고받을 때 이용하는 비언어적인 단서도 포함하여 느낌, 태도, 신념,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과정으로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고 했다(김은정, 2008, 재인용).

Nick과 Nancy Stinnet, Joe와 Alice Beam(2008)은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억압하지 않고 표현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촉진시킬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진실하고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에게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짐으로써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자기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안정적인 자기가치는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낳는다. 자신의 감정이나 견해, 느낌 등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에게 표출하는 자기개방은 의사소통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로(전길량·김태현, 1988) 상호간의 이해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여 친밀감을 형성시킨다(장휘숙, 2008). 또한 상호간의 이질감을 감소시켜 인간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서해광, 1985),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며 친밀한 인간관계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Solano et al., 1982; Jourard, 1974; 전길량·김태현, 1988, 재인용). 이는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이나 느낌을 조금도 꾸밈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털어놓고 말하는 중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Gelman & McGinly, 1978; Worth, Gary & Kahn, 1969; Hood & Back, 1971; Jourard & Lasakow, 1958; 변경애, 1993,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의사소통이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을 이해시키고 타인을 이해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기

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임은 분명하다.

## 2) 부부 의사소통의 역할과 특징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전형적인 신호이다(토니 험프리스, 2010). Noller와 Fitzpatrick(1991)에 의하면 부부 의사소통 방식과 부부만족 사이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다(장휘숙, 2008, 재인용).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건강한 부부관계의 핵심적인 요소(Brunworth, 1982; Farthing, 1984; Urban, 1980; 김은정, 2008, 재인용)이며 부부 의사소통과 결혼만족 및 행복도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Boyd & Roach, 1977; Navran, 1967; Hick & Platt, 1970; Lewis & Spanier, 1979; Jourard, 1971; 김재산·전영수, 1983; 송말희, 1986 ; 김인숙, 1988; 전귀연·구순주·박경란, 1998, 재인용)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혼만족이 높은 부부와 결혼만족이 낮은 부부간에는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일수록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결혼만족도가 낮은 부부일수록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감정과 소망에 대한 표현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현숙, 2001; 유시순, 2003; 김민녀, 2004; 임미경, 2008, 재인용).

의사소통의 본질은 부부만족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박영화·고재홍, 2005; 한주리·허경호, 2004; Noller & Fitzpatrick, 1991; 장휘숙, 2008, 재인용). 부부의 친밀감과 만족스러운 관계 형성을 위해 의사소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서수경·이정덕, 1991). 즉,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간의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친밀감이 발달되어 결혼생활 만족에 기여하게 된다.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결혼생활 만족도가 증가되며, 결혼생활 만족도가 증가되는 것은 부부외의 다른 가족원에게도 좋은 환경 여건을 조성해주는 일이 된다. 따라서 부부가 내적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가족 체계의 문제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 가정은 병들게 되고 부부체계의 경계가 와해되며 부부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자녀와 협력관계를 맺게 된다든지 혹은 자녀의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하여 병적인 자녀를 만들게 된다든지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모든 문제를 의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관계가 계속 될 수 있는 것이다(오

경희, 1997).

또한 부부갈등을 발생시키는 중요 요인 중 하나로 의사소통의 문제를 여러 연구(조영란, 1993; 최규련, 1994; 김갑숙·최외선, 1992)들은 제시하고 있다(이은희, 2003, 재인용). 그리고 연구자(Gottman, 1995; Noller & Fitzpatrick, 1991)들은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과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의사소통 패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긍정적 사고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부부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 또한 결혼생활의 만족은 물론 안정성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다. 부부가 파괴적, 부정적 의사소통을 할 때 부부불화나 낮은 부부만족을 경험한다(Gottman & Notarius, 2000). 또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이혼이나 부부갈등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다(Stanley, Markman, & Whitton, 2002). 긍정적 의사소통은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부부 사이의 갈등도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므로 부부만족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효율적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정상가족과는 대조적으로 문제가족은 비효율적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 의사소통은 부부강도와 함께 가족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비행청소년들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품행장애를 갖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보잘 것 없는 의사소통을 하는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보고한다(Bichoff, Stith, & Wilson, 1992; 장휘숙, 2008, 재인용).

토니 험프리스(2009, 2010)는 부부간 분명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강조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메시지가 누구에 관한 것이고,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고,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며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관점, 생각, 의견, 감정 등을 표현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어떠한 욕구든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자유와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부부가 서로의 요구와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면 갈등의 소지는 현저히 줄어든다.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자신의 필요와 욕구, 포부에 대해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표현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쌓을 수 있다.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건강하고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감정노출의 중요함을 말하며 부부 의사소통에 부부간 감정노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감정은 개



인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장 정확하고 강력하게 드러내는 신호이며, 내면을 깨닫고 적절한 행동을 하라는 단순한 신호일 뿐,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어떤 감정이든 개인의 내면상태를 분명히 드러내는 표현일 뿐 나쁘거나 비정상적인 것은 없으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기본적인 욕구들이 드러나지 않아 욕구를 충족할 기회도 잃게 된다 했다. 감정의 억제 및 억압은 감정적·사회적·신체적 행복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부가 서로 평온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부부관계에 깊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며 평온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부부를 더욱 깊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고 개개인의 자아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킨다고 했다.

이상에서와 같이 부부 의사소통은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갈등을 해결하여 결혼만족을 포함한 원만한 부부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신의 욕구, 생각, 감정을 표현하는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애정이 충족되는 것이다.

### 3) 부부 의사소통 유형 고찰

의사소통 유형이란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상호관계가 확립되고 지속·연결되어 의사소통 행동이 서로 비슷한 일련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이정순, 1991).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의사소통의 과정을 보여주며 개인 간의 정서적 친밀성의 공유와 개인의 사고, 가치, 관심 등의 표현을 향상시키거나 억제하는 언어적인 상호작용의 특징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다(Hawkins, Weisberg, & Ray, 1980).

의사소통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먼저 외국의 선행연구를 통한 의사소통 유형은 언어화와 감정적인 면(Satir, 1972; Hawkins, Weisberg, & Ray, 1977, 1980), 가족규칙 및 관계(Vincent, Friedman, Nugent, & Messerly, 1979), 지각의 유사성과 이해(Edwards, 1980) 등을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이정순, 1991, 재인용).

Edwards(1980)는 지각의 유사성과 이해를 기준으로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을 조화 상태(consonant condition), 갈등 상태(conflict condition), 부조화 상태(dissonance condition), 비갈등 상태(non-conflict condition)로 나누었다. Vincent,

Friedman, Nugent, & Messerly(1979)는 가족규칙 및 관계를 기준으로 완고형(rigid type), 융통형(flexible type), 공포형(fearful type), 개방형(open type)으로 나누었다. Satir(1972)는 언어, 몸의 자세, 내면적 감정 등을 기초로 회유형(placater), 비난형(blamer), 초이성형(computer), 산만형(distracter), 일치형(leveler)으로 구분하였다. Hawkins, Weisberg, & Ray(1977, 1980)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사실에 대한 언어화 정도와 정서적 감정 노출에 따라 친숙형(contactful style), 분석형(speculative style), 억제형(controlling style), 차단형(conventional style)으로 분류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성자(1985)는 한국 가족 구조, 한국인의 성격, 가치관 등 주로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기준으로 권위지향형, 불성실지향형, 지배지향형, 희생지향형, 소심지향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원효종(1984)은 Hawkins, Weisberg, & Ray(1977, 1980)의 분류에 입각하여 친숙형, 분석형, 억제형, 차단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이기숙(1988)도 이러한 분류에 기초하여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간의 의사소통 변화를 연구하여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정순(1991)은 비난하는 태도, 이성적인 태도, 일방적인 태도, 무관심한 태도, 양보하는 태도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창숙·유영주(1988)는 Hawkins, Weisberg, & Ray(1977, 1980), Satir(1972), 송성자(1985) 등의 이론과 분류를 근거로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권위형, 친숙형, 희생형, 분석형, 타인지향형, 성실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김은심(1988)은 문제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을 권위지향형, 소심지향형, 불성실지향형, 희생지향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Hawkins, Weisberg, & Ray(1977, 1980)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awkins, Weisberg, & Ray(1977, 1980)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사실에 대한 언어적 표현의 정도와 정서적 감정노출에 따라 분류하였다. 먼저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폐쇄적인 형태와 개방적인 형태로 나누어진다. 폐쇄적 형태는 자신이나 상대방이 외적으로 경험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나 내적인 생각과 감정에 관해서 언어적으로 거의 드러내려 하지 않으며 그 사실 자체를 무시하기도 하는 것이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자신이나 타인의 내외적인 경험과 사실

을 인정하고 자신의 관점을 언어적 표현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원효종(1984)은 폐쇄형에서는 감정의 노출이 비언어적으로 되고 개방형에서는 언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또한, 감정노출 정도에 따라서 감정노출의 정도가 낮은 상태와 높은 상태로 구분되는데, 감정노출 정도가 낮다는 것은 상대의 감정이나 의도, 행동들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몰입해 있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감정노출 정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강하게 몰입해 있음을 나타내며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의사소통 유형을 감정·언어표현이 높은 친숙형(contactful style), 감정표현은 낮고 언어표현은 높은 분석형(speculative style), 감정표현은 높지만 언어표현은 낮은 억제형(controlling style), 감정·언어표현이 모두 낮은 차단형(conventional style)으로 나눌 수 있다(원효종, 1984; 김인숙, 1988; 이정순, 1991; 김요완, 2000).

각각의 의사소통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차단형(Conventional style)은 문제를 감추거나 회피하여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명백하고 정확하게 언어로 나타내려 하지 않으며 감정을 충분히 나타내지 않아 정서적 몰입의 상태를 거의 보이지 않으려 한다. 가벼운 농담이나 날씨 등에 관한 이야기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단지 상대방과의 관계만을 유지하려 할 때 나타난다. 자기를 개방하기 꺼려해 언어화하지 않고 감정을 노출하지 않으며 피상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할 때의 의사소통 유형이다.

억제형(Controlling style)은 상호적으로 상대방과의 충분한 의미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폐쇄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어떠한 문제나 내면상태에 대해 명확하게 언어로 표출하지 않는다.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암시적으로 감정의 상태가 높거나 부정적이라는 것이 명백히 표현되지만 객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즉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언어적인 표현으로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은 꺼리는 유형이다.

분석형(Speculative style)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탐구하고 분석하며 타인의 의견이나 관점이 본인과 상이해도 존중해주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명백하게 언어화하지만 정서적으로 거의 몰입하지 않아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 표출이 낮다. 즉, 일반화된 사실이나 사건 등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나 기분 등의 정서에 대한 노출은 꺼려하는 유형이다.

친숙형(Contactful style)은 정서적으로 풍부한 상태를 보이며 자신의 내적 사실과 경험을 명백하게 개방적으로 언어를 통해 표출하며 정서적으로 강한 몰입을 보여 감정적 노출이 많은 유형이다.

이상의 네 유형을 언어적 표현 정도와 감정의 노출 정도로 정리하면 <표Ⅱ-1>과 같다(Hawkins, Weisberg, & Ray, 1977).

<표Ⅱ-1> 의사소통 유형의 분류

언어적 표현 정도 감정노출 정도	개방적인 언어표현	폐쇄적인 언어표현
높은 감정노출	친숙형	억제형
낮은 감정노출	분석형	차단형

이러한 분류에 따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효종(1984)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 폐쇄적이기 보다는 개방적 의사소통 양식을 많이 사용하였고 특히 친숙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 의사소통 양식이 동일할 때에 의사소통 불안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부부간에 상호감정의 노출 및 개방성의 정도가 같을 때 부부간의 의사소통 불안의식이 가장 낮았다. Hawkins, Weisberg 및 Ray(1977)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권석만(2009)은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차단형과 억제형의 의

사소통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반면, 분석형과 친숙형은 너무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기존의 많은 연구(Fogarty, 1976; Napier, 1978; Christensen & Heavey, 1990; Levensen & Gottman, 1985)들은 부부간 상호작용에서 남녀차이가 있음을 보고하며 흔히 여성은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남성은 철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다. Rubin(1983)에 의하면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정체감은 관계맥락(context of relationship)에서 발달하게 되고, 남성의 정체감은 분리맥락(context of separation)에서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은 흔히 '분리'에 의해서 더 위협을 느끼게 되고, 남성은 '애착'과 '친밀감'에 의해서 더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의 차이가 결혼생활에서 여성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남성은 더욱 독립적인 관계를 원하는 핵심갈등을 형성하게 된다(임승락, 1998, 재인용).

또한, 남성과 여성은 대화를 하는 목적이나 대화를 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Deborah Tannen, 1990). 인간은 누구나 '독립'과 '유대관계'라는 상충된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대화의 과정에서 이들 욕구를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남성은 특히 '독립'의 틀에서 대화를 하고 여성은 '유대관계'의 틀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관의 차이 때문에 남성들은 정보를 나누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하고 여성들은 친교를 나누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손달임, 2008, 재인용). 이런 차이가 있음은 부부간 의사소통에서도 나타나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고정화되어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남편과 부인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부부 의사소통 유형은 부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이정순(199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윤호균·이선희(2000)는 MBTI 각 지표들의 의미에 따라 남편과 부인의 성격 특성들이 부부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연구하며 남편들은 직관적, 논리적, 주도적, 외향적 성격특성이 있고 부인들은 현실적, 감정적, 수용적, 내향적 성격 특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말했다. 남편과 부인의 성격 특성상의 차이도 부부간 의사소통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Christensen(1988)과 Beck(1983)에 따르면 자율지향성(autonomy)이 높은 사람은 자율성을

확보하고 외부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을 가지는 반면에 관계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자율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자기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격리(distancing)되려 하고, 관계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친밀성(closeness)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가장 친밀한 대인관계인 부부간 상호작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임승락, 1998, 재인용). 이상에서와 같이 여성과 남성의 사회화 과정에서의 차이, 성격 특성에서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부부 의사소통에서도 남편과 부인의 차이가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원호중(1984)의 연구에서도 억제형을 제외한 3가지 유형의 사용빈도에 있어서 남편과 부인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에서 다양한 부부 의사소통 유형 분류와 연구자가 선택한 부부 의사소통 유형, 각 유형의 특징 및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남편과 부인의 의사소통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자는 Hawkins, Weisberg 및 Ray(1977, 1980)가 제시한 친숙형, 분석형, 억제형, 차단형을 분류 유형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의사소통 유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알리는 감정적 자기노출은 부부 관계의 상호작용에서 필수요건이며 이를 통해 신뢰와 친밀감을 발달시켜준다(정은미, 1995). 또한 부부는 서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하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본질적인 요소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대화이다(토니 험프리스, 2009, 2010). 따라서 부부 관계에 언어적 표현 정도와 감정보출 정도가 중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를 기준으로 분류한 Hawkins, Weisberg 및 Ray(1977, 1980)의 의사소통 유형을 선택하였다.

## 2. 자아존중감

### 1) 자아존중감의 개념과 역할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아체계, 성격 및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 개념의 하나이며 자기사랑(self-love), 자기존경(self-respect), 자기가치(self-worth), 자기평가(self-evaluation), 자기수용(self-acceptance), 자기확신(self-confidence) 등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용어들 모두가 자아존중감이 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면, 자아존중감은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정의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이은희, 2003).

자아존중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osenberg(1989)는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특별한 객체인 자아에 대해 자신이 지각한 자아개념에 대한 태도 및 정의적 반응으로 보고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Landy(2002)는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혼란스러워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아개념은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말하며, 자아존중감은 그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윤향미, 2007, 재인용).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유의미하며 성공적이고 가치있는 존재로 믿느냐의 정도이며 자기 자신이 취하고 있는 가치적 판단 및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순재(1994)는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태도 속에 반영되는 인격의 안정된 요소 즉, 전반적인 긍정적 태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은희(2003)는 자신이 환경 속에서 지각한 자신의 여러 속성에 대한 평가적·감정적 태도이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성공적이고 가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자아존중감이라 하였다.

이렇듯 자아존중감의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나 인간의 주체적인 사고와 행동의 연결고리로 작용하여 개인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견해를 나타내며, 자기수용, 자기인정, 그리고 자기존중의 태도로서, 개인이 성장하면서 건전한 성격을 이루고 적절하게 환경에 적응해 나가며 긍정적인 자기실현을 성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Coopersmith, 1981;

Harter, 1983; Wylie, 1979)라 할 수 있다(최애나, 2007, 재인용).

윌리엄·류나미(2007)도 자아존중감이 인간발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 정신건강의 중추가 되고,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 적응과 건전한 성격발달, 나아가 긍정적인 자아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했다. Reasoner(1982) 또한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아동들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아실현 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백종순, 2008, 재인용)라 하며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의 성취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발달의 중심 과제 중의 하나이며 특히 어린 아동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다 했다. 또 아동의 행동 특성에 영향을 주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나 자신의 행동양식을 결정지어준다고 하며 오옥선(2009)은 아동기의 발달과정에 자아존중감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경자(2001)는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지속적이고 아동기에 발달을 하며 그것이 일생을 통하여 영향을 끼치므로 아동기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많은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성인기에 있어서 좋은 사회적응의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상에서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자신에 대한 태도로서 개인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인생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 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정환경에 관한 고찰

가족과 부모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하고, 쉽게 끝낼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청소년이 학교에서 보이는 부적응 문제들이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의 문제라는 연구결과(조홍식, 1999)와 청소년의 적응과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는 가족문제와 직결된다는 연구결과(박민주·황기아, 2007; 유영주·양순미, 2003; 임정아·이인수, 2006; 이혜경, 2008, 재인용)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자아존중감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아존중감의 형성과정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와 부모, 친구, 교사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관여(Harter, 1983)하지만 특히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유아기, 아동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가정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즉,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 대한 부모의 평가를 내재화하며, 부모의 행동 및 태도를 동일시 또는 모방하게 된다(이은희, 2003).

허정(2005)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내접하고 있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와의 긴밀한 관계와 부모자녀간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상호관계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신미경(2008)은 개인적 요인, 친구요인, 가족요인, 학교 생활 요인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주며 가족요인이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했다. 이은희(2003)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변인임을 말하며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의 올바른 자아존중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rickson(1959)에 의하면 아동기(6세-12세)는 자아존중감 형성·발달에 있어 결정 적시기이며, 이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가정환경,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아동의 많은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고 9-10세 경 뚜렷해지고 12세경에는 안정된 양상을 보인다.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모의 평가를 흡수하여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반영효과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자아존중감도 모방하게 된다는 모방효과를 통해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알 수 있다(신주이, 2008, 재인용). Coopersmith(1967)도 자아존중감이 가족적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정환경이 좋고 가족관계가 원만한 경우 아동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신장시킬 수 있으며, 개성적이고 안정된 자아를 기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자녀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이 낮은 가정에서 자녀는 더 낮은 우울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김상빈, 1994)는 연구도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인간의 일생을 통해 변화하는 자아존중감은 어릴 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대부분은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한 어린아이의 일생을 통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아존중감의 고저

정도는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부모가 주된 역할을 한다(하수정, 2008)고 볼 수 있다.

부부관계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 정도 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신미경, 2008), 부부사이의 상호작용과 관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중요하다(이은희,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가정의 심리적 환경속에서 형성·발달되는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부모갈등 지각과 상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갈등에 많이 노출되고 부부사이의 관계를 심각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부부관계가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좌우하는 중심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김이점(1995)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부모의 화목정도를 높게 지각한 자녀들의 자아개념 및 성격요인은 긍정적이었고, 부부불화가 적을수록 자녀는 우울을 적게 경험하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적으며 부모에 대한 태도가 좋았다. 또한 정화용(2000)도 부모의 갈등에 자주 노출되고 부부사이의 관계를 심각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대처반응을 초래한다 했다. 부모의 삶 자체가 화목한 관계냐 갈등의 관계냐 하는 것은 부모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화목한 가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자란 아동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아지는 것처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과 부모의 상호관계 뿐 아니라 부부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는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 3. 부부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부는 가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이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집안의 안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순전히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다루는 모습을 보면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되며 부부관계가 화목하면 부부간의 배려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가족으로 확장된다. 즉, 부부관계에 따라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아이들끼리 맺는 관계가 달라진다(토니 험프리스, 2010).

부부사이의 의사소통은 자기개방을 포함해야(장휘숙, 2008) 하는데, 이는 가장 일치하면서 가장 친밀한 노출은 결혼관계에서 일어나며, 결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배우자에게 더 많이 노출을 하기 때문(Jourard & Lasakow, 1958; 변경애, 1993, 재인용)이다. 부부 상호간의 솔직하고 충분한 자기개방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어 현대 가정생활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고, 만족스러우며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Boyd와 Roach(1977), Navran(1977), Hicks와 Platt(1970)도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반면에 자기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것은 정신생활의 질을 낮추고 정신건강을 해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부부간에서의 감정과 자기표현의 억제는 원만한 가정생활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전길량·김태현, 1988).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부부간의 긍정적이고 솔직한 자기노출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이며 노력해야 할 측면이다(정은미, 1995). 분명한 언어를 통한 평온한 감정 노출은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부부 개개인의 자아인식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더불어 자녀들의 안정감도 커지게 한다.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성숙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부부는 자녀에게도 따뜻한 배려를 하지 않으며 부부관계에 따라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달라진다(토니 험프리스, 2010). 즉, 부모들 간의 친밀한 관계는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관련되어진다(고은진, 2008).

부부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표현정도는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며(김인숙, 1988; 김요완, 2000), 감정적 자기노출을 통한 의사전달도 결혼만족도를 높여준다(정은미, 1995). 이렇듯 언어표현과 감정노출을 통한 의사소통은 개인뿐 아니라 부부 의사소통, 부부관계,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는 가족의 심리적 분위기와 관계를 형성하는 근거가 되며, 자녀 양육태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원유미, 1999). 따라서 부부의 결혼만족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윤경화, 1992; 원유미, 1999; 박홍미, 2003; 이경화, 2005; 임미경, 2008). 어머니가 자신의 결혼에 만족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여 자녀를 수용적이며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박홍미, 2003). 또한 배우자에게 자신이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가치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 그것은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인내심, 너그러움, 따뜻함에 영향을 주게 되고 반면에 부모가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게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불만으로 갈등에 빠져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원유미, 1999).

부부관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부부 자신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전한 인성 발달, 사회화, 나아가 자녀의 앞으로의 결혼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문제아, 청소년 비행, 이혼율 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서수경·이정덕, 1991).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은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낀다. 가정에 위협이 닥치기 때문에 불안하고, 실제로든 아니면 상상이든 부모의 불화가 자기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죄책감을 느낀다. 틀리든 맞든, 아이들은 자기들이 가정불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하임 G. 기너트 외, 2008). 수많은 연구와 경험에 따르면, 아이들의 학습장애는 물론 직무태만과 범죄행위, 폭력, 그 밖의 위협적인 사회적 행동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 그 아이가 나고 자란 가족이 나타난다(토니 험프리스, 2010).

부부갈등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으며(김이겸, 1994; 박영림, 2001; 김애경, 2003; 이은희, 2003 등) 부모의 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모의 부부갈등은 직, 간접적으로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친다(강나정, 2007). 부부갈등 정도가 심해지면 가족 간의 유대와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를 해침으로써 자녀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김

에경, 2003). 즉 부부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적대감 등이 자녀에게 전달됨으로써 부모간의 갈등은 자녀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부갈등으로 인해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좌절, 무기력감이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화용(200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사이가 화목한가 갈등의 관계인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김이검, 1994).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때, 자녀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타인과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부가 서로 용납과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자녀를 대한다면 자녀는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갖게 되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소유하게 된다(박홍미, 200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오경희, 1997). 이는 부부간 의사소통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부부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고 한 권용신(200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임의로 선정한 5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810쌍(아동 810명, 어머니 810명, 아버지 810명)을 대상으로 배포하였고 그 중 총 273쌍(아동 273명, 어머니 273명, 아버지 273명)의 설문지가 사용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설문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 많아 조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많았다. 둘째,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 아버지를 쌍으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설문만이라도 빠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나머지 설문도 자료분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회수된 설문 중에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의사소통 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부부의 설문을 모두 자료 분석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 아버지의 분포 및 일반적 성격은 <표 Ⅲ-1>, <표 Ⅲ-2>와 같다.

<표 Ⅲ-1> 분석대상(아동)

구 분	빈도(명)	비율(%)
남학생	113	41.4
여학생	158	57.9
무응답	2	0.7
합 계	273	100

<표 III-2> 분석대상(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

N=273

구분		아버지		어머니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연령	30대	46	16.8	122	44.7
	40대	203	74.4	140	51.3
	50대 이상	23	8.4	10	3.7
	무응답	1	0.4	1	0.4
학력	중 중퇴, 중졸	11	4.9	12	4.4
	고 중퇴, 고졸	85	31.1	116	42.5
	대 중퇴, 대졸	147	53.8	128	46.9
	대학원 이상	30	11.0	16	5.9
	무응답	0	0	1	0.4
직업	무직	3	1.1	2	0.7
	전업주부	2	0.7	90	33.0
	생산직	32	11.7	15	5.5
	상업 서비스	104	38.1	68	24.9
	사무직	60	22.0	64	23.4
	관리직	23	8.4	2	0.7
	전문직	16	5.9	12	4.4
	기타	33	12.1	20	7.3
주거지	제주시	115	42.1	115	42.1
	제주시 읍·면지역	52	19.0	52	19.0
	서귀포시	56	20.5	56	20.5
	서귀포시 읍·면지역	50	18.3	50	18.3
결혼기간	1-10년	5	1.8	5	1.8
	11-15년	177	64.8	177	64.8
	16-20년	65	23.8	65	23.8
	20년 이상	26	9.5	26	9.5
자녀수	1명	13	4.8	13	4.8
	2명	123	45.1	123	45.1
	3명 이상	137	50.2	137	50.2
월평균수입	없다	4	1.5	50	18.3
	100만원 미만	18	6.6	63	23.1
	100~200만원 미만	92	33.7	71	26.0
	200~300만원 미만	60	22.0	38	13.9
	300~500만원 미만	71	26.0	39	14.3
	500만원 이상	28	10.3	12	4.4

## 2. 연구도구

### 1) 의사소통 유형 측정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Hawkins, Weisberg 및 Ray(1977, 1980)가 개발한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6개의 질문을 기초로 원효중(1984)이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후 김인숙(1988), 김요완(2000) 등의 논문에 사용된 부부 의사소통 유형 측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alpha$ 값은 .72로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설문은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질문 아래에는 친숙형, 분석형, 억제형, 차단형을 대표하는 구조화된 4개의 응답이 응답자의 진술형식으로 준비되어 있다. 응답자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응답의 순서는 각 질문마다 다르게 배열되어 있다.

의사소통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10개의 응답을 각 양식으로 분류하고 각 양식의 개수를 개인의 각 의사소통 유형의 사용정도라 하였다. 10문항에서 의사소통 유형을 대표하는 4가지 보기 중 4이상의 가장 많은 응답 빈도를 가진 유형을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보았다. 따라서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빈도가 10을 초과할 수 없고, 빈도가 4미만을 기록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는 부부의 경우는 부부 모두의 설문을 결과처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라도 두 가지 유형이 동일한 빈도로 많은 응답을 보인 경우도 뚜렷한 의사소통유형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부 모두의 설문을 결과처리에서 제외하였다.



<표 III-3> 부부 의사소통 유형 측정 설문지의 유형별 해당 문항

유형	특징	유형 해당 문항									
		1	2	3	4	5	6	7	8	9	10
친숙형	개방적 언어표현 높은 감정노출	④	③	③	②	④	③	①	④	①	②
분석형	개방적 언어표현 낮은 감정노출	③	②	④	④	③	④	②	③	②	④
억제형	폐쇄적 언어표현 높은 감정노출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②	④	③
차단형	폐쇄적 언어표현 낮은 감정노출	①	④	①	①	②	①	④	①	③	①

## 2) 자아존중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Coopersmith(1967)와 Pope, McChale 및 Craighead(1988)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연구개발하고 전승배(2000)가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The Self Esteem Inventory; SEI)를 사용하였다.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24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을 때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9 \sim .84$ 의 범위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치를 보였고 전승배(2000)가 재검사했을 때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045$ 로 높은 편이었다.

이 검사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며 총체적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 6문항, 사회적 자아존중감(social-peer self-esteem) 9문항,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home-parents self-esteem) 9문항,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school-academic self-esteem) 8문항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체적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평가이며 아동 자신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근거한다. 사회적 자아존중감(social-peer self-esteem)은 다른 사람에 대한 친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포함한다.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home-parents self-esteem)은 가정생활에서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한가에 대한 평가적 태도를 말한다. 즉, 가족구성원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을 반영한다.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school-academic self-esteem)은 학업적 평가는 물론 학교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유능감을 포함한다. 즉, 학생으로서 그 자신에 대한 평가를 다룬다.

본 검사에 대한 응답은 Likert식 5단계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아니다’는 2점, ‘전혀 아니다’는 1점으로 배점하여 채점하며, 부정 진술 문항(4, 8, 12, 16, 20, 24, 27, 30)의 경우는 역으로 환산 채점 처리하여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본다.

척도의 자아존중감 영역별 신뢰도는 <표 III-4>에서 제시하였는데, 전체 신뢰도는 .90이며, 일반적 자아 .82, 사회적 자아 .89, 가정적 자아 .87, 학교 자아 .70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자아존중감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
총체적 자아존중감	1, 5, 9, 13, 17, 21	.82
사회적 자아존중감	2, 6, 10, 14, 18, 22, 25, 28, 31	.89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3, 7, 11, 15, 19, 23, 26, 29, 32	.87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4, 8, 12, 16, 20, 24, 27, 30	.70
전체	1-32	.90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B초등학교, K초등학교, C초등학교, S초등학교, D초등학교의 5, 6학년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09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실시되었고 설문 활용률은 33.7%였다.

본 연구자가 직접 각 학교선생님과 전화 통화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의뢰한 후 5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협조사항을 다시 부탁하고 각 학급 담임 선생님들께 아동용 설문지 작성과 어머니, 아버지 설문지 배포 시 안내와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지를 함께 드렸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검사는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적절한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부 의사소통 유형 설문지는 봉투에 넣어 아동 편으로 집에 보내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의논하지 않고 작성하도록 하여 봉한 후 아동이 회수해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모든 연구 대상자들의 설문이 무기명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각 아동과 어머니, 아버지를 한 쌍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쌍을 이룬 설문지가 섞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를 위해 아동용 설문지와 집으로 보내는 어머니, 아버지 설문 봉투에 동일한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설문지를 모두 회수한 후에 연구자가 동일한 번호를 찾아 한 쌍으로 묶어 정리한 후 통계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고 공백이 많은 설문, 아동과 어머니, 아버지 설문 중 하나라도 누락된 설문, 부부 중 한쪽이라도 의사소통 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자료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작업을 한 후, SPSS WIN 1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해 빈도분석, t검증,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개인의 의사소통 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개인의 의사소통 유형 분류를 기초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언어적 표현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감정노출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치-불일치 유형을 지정하고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부 의사소통 유형 분류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의사소통 유형은 친숙형, 분석형, 억제형, 차단형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편의에 따라 친숙형을 A로, 분석형을 B로, 억제형은 C로, 차단형을 D로 명명하였다. 부부 의사소통 유형은 남편의 유형을 앞에, 아내의 유형을 뒤에 위치시켰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친숙형인 부부는 AA로, 남편이 분석형이며 아내가 차단형인 경우는 BD와 같은 형식으로 명명하였다. 이에 따라 부부 의사소통 유형은 총 16가지로 분류되며 세부 유형은 <표 III-5>와 같다.

<표 III-5> 부부 의사소통 유형 분류

남편 \ 아내	친숙형(A)	분석형(B)	억제형(C)	차단형(D)
친숙형(A)	AA	BA	CA	DA
분석형(B)	AB	BB	CB	DB
억제형(C)	AC	BC	CC	DC
차단형(D)	AD	BD	CD	DD

위의 유형에서 언어적 표현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이 일치하는 부부 유형은 AA, BB, CC, DD 유형으로, 불일치하는 부부 유형은 AB, BA, CD, DC 유형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감정도출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이 일치하는 부부 유형은 AA, CC, BB, DD 유형으로, 불일치하는 부부 유형은 AC, CA, BD, DB 유형으로 지정하였다.

넷째,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감정도출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부부 의사소통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 비교

부부 의사소통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의 빈도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 빈도

유형	남편		아내	
	유형수	%	유형수	%
친숙형	135	49.45	197	72.16
분석형	52	19.05	25	9.16
억제형	40	14.65	41	15.02
차단형	46	16.85	10	3.66
합계	273	100.00	273	100.00

남편의 경우, 친숙형은 135명으로 49.45%, 분석형은 52명으로 19.05%, 억제형은 40명으로 14.65%, 차단형은 46명으로 16.85%이다. 아내의 경우, 친숙형은 197명으로 72.16%, 분석형은 25명으로 9.16%, 억제형은 41명으로 15.02%, 차단형은 10명으로 3.66%이다.

남편과 아내 모두 억제형이나 차단형보다는 친숙형 혹은 분석형으로 의사소통하여 폐쇄적이기 보다는 개방적인 유형을 더 사용하였다. 이는 원효중(1984), 이기숙(1988), Hawkins, Weisberg 및 Ray(1980)의 연구와 일치한다. 친숙형과 분석형을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 억제형과 차단형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으

로 볼 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보다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근후·이동원(1973), 김인숙(1988), 도미향·최외선(1990)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이다.

평균적으로 남편은 아내보다 차단형과 분석형을 많이 사용하고 아내는 남편보다 친숙형을 더 많이 사용했다. 이것은 아내는 감정적인 대화를 즐기고 남편은 감정을 억제하고 실용적 대화를 많이 한다는 Balswick(1978)의 주장(이정순, 1982, 재인용)과 일치하며 원효중(198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 2. 언어적 표현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각 집단의 사례수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사례수

유형	AA	AB	AC	AD	BA	BB	BC	BD	CA	CB	CC	CD	DA	DB	DC	DD
N	108	12	14	1	39	4	7	2	19	4	12	5	30	6	8	2

언어적 표현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AA, BB, CC, DD 유형)-불일치(AB, BA, CD, DC유형)에 따른 각 집단의 사례수와 이에 해당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언어적 표현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언어적 표현 정도	N	M	SD	t	P
총체적 자아존중감	부부일치	126	3.73	.65	1.172	.243
	부부불일치	64	3.85	.59		
사회적 자아존중감	부부일치	126	3.20	.64	1.966*	.051
	부부불일치	64	3.38	.58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부부일치	126	3.75	.70	2.452*	.015
	부부불일치	64	3.99	.52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부부일치	126	2.82	.64	.577	.564
	부부불일치	64	2.77	.58		
전체	부부일치	126	3.36	.49	1.752	.081
	부부불일치	64	3.49	.43		

\* p<.05

언어적 표현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p<.05수준에서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부부일치일 때 3.20, 부부불일치일 때 3.38로 나타났으며,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부부일치일 때 3.75, 부부불일치일 때 3.99로 부부가 일치하는 경우보다 불일치하는 경우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 의사소통 시 언어적 표현 정도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이 다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3. 감정노출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감정노출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AA, CC, BB, DD 유형)-불일치(AC, CA, BD, DB 유형)에 따른 각 집단의 사례수와 이에 해당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감정노출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감정노출 정도	N	M	SD	t	P
총체적 자아존중감	부부일치	126	3.73	.65	1.157	.249
	부부불일치	41	3.87	.60		
사회적 자아존중감	부부일치	126	3.20	.64	2.003*	.047
	부부불일치	41	3.42	.55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부부일치	126	3.75	.70	.796	.427
	부부불일치	41	3.85	.65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부부일치	126	2.82	.64	.105	.916
	부부불일치	41	2.83	.60		
전체	부부일치	126	3.36	.49	1.369	.173
	부부불일치	41	3.48	.45		

\* p<.05

감정노출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p<.05수준에서 사회적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의사소통 유형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3.20, 불일치하는 경우의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3.42로 나타나 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보다 불일치하는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부부 의사소통 시 감정노출 정도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이 다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4.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남편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른 각 집단의 사례수와 이에 해당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남편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종속변수	언어적 표현 정도	N	M	SD
총체적 자아존중감	개방적	187	3.81	.65
	폐쇄적	86	3.66	.56
	합 계	273	3.77	.63
사회적 자아존중감	개방적	187	3.31	.64
	폐쇄적	86	3.16	.59
	합 계	273	3.26	.63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개방적	187	3.86	.68
	폐쇄적	86	3.75	.61
	합 계	273	3.83	.66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개방적	163	2.74	.78
	폐쇄적	110	2.56	.70
	합 계	273	2.67	.76
전체	개방적	187	3.44	.49
	폐쇄적	86	3.31	.40
	합 계	273	3.40	.47

남편의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IV-6>과 같다.

<표 IV-6>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남편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에 대한 다변량분석

독립 변수	종속변수	Wilks의 랏다	단변량F	자유도	$\eta^2$	단계적F	p
언어 표현 정도	총체적 자아존중감	.21 (p=.02)	3.350*	1/273	.120	3.350*	.048
	사회적 자아존중감		3.303*	1/273	.120	3.303*	.050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3.420	1/273	.063	2.619	.100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2.618*	1/273	.130	5.141*	.024
	전체		4.748*	1/273	.125	4.748*	.030

\* p<.05

Wilks의 랏다는 .21, 유의확률은 .02으로 p<.05수준에서 남편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변량 F검정에서 남편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전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F 검정에서 남편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전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eta^2$ 에 의하면 총체적 자아존중감 요인은 총 변화량의 12%, 사회적 자아존중감 요인은 12%,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요인은 6%,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요인은 13%, 자아존중감 전체 요인은 13% 정도가 언어적 표현 정도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남편의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체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F=4.748, p<.05).

종합하면 남편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즉 남편이 아내와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적인 경우와 폐쇄적인 경우에 있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요인으로 보면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와의 의사소통시 언어표현 정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아내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른 각 집단의 사례수와 이에 해당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아내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종속변수	언어적 표현정도	N	M	SD
총체적 자아존중감	개방적	222	3.75	.63
	폐쇄적	51	3.84	.62
	합 계	273	3.77	.63
사회적 자아존중감	개방적	222	3.24	.63
	폐쇄적	51	3.36	.62
	합 계	273	3.26	.63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개방적	222	3.83	.68
	폐쇄적	51	3.81	.52
	합 계	273	3.83	.66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개방적	222	2.80	.58
	폐쇄적	51	2.72	.62
	합 계	273	2.78	.59
전체	개방적	222	3.39	.48
	폐쇄적	51	3.42	.42
	합 계	273	3.40	.47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IV-8>과 같다.

<표 IV-8>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아내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에 대한 다변량분석

독립 변수	종속변수	Wilks의 랏다	단변량F	자유도	$\eta^2$	단계적F	p
언어 표현 정도	총체적 자아존중감	.98 (p= .37)	.928	1/273	.003	.928	.336
	사회적 자아존중감		1.517	1/273	.006	1.517	.219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025	1/273	.000	.025	.874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724	1/273	.003	.724	.395
	전체		.141	1/273	.001	.141	.708

\* p<.05

Wilks의 랏다는 .98, 유의확률은 .37로 p<.05 수준에서 아내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내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즉 아내가 남편과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적인 경우와 폐쇄적인 경우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감정노출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남편의 감정노출 정도에 따른 각 집단의 사례수와 이에 해당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남편의 감정노출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종속변수	감정 노출	N	M	SD
총체적 자아존중감	높은 감정노출	175	3.78	.65
	낮은 감정노출	98	3.75	.58
	합계	273	3.77	.63
사회적 자아존중감	높은 감정노출	175	3.29	.65
	낮은 감정노출	98	3.23	.58
	합계	273	3.26	.63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높은 감정노출	175	3.79	.69
	낮은 감정노출	98	3.90	.59
	합계	273	3.83	.66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높은 감정노출	175	2.82	.62
	낮은 감정노출	98	2.72	.53
	합계	273	2.78	.59
전체	높은 감정노출	175	3.40	.49
	낮은 감정노출	98	3.39	.43
	합계	273	3.40	.47

남편의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감정노출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IV-10>과 같다.

<표 IV-10>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남편의 감정노출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에 대한 다변량분석

독립 변수	종속변수	Wilks의 람다	단변량F	자유도	$n^2$	단계적F	p
감정 노출 정도	총체적 자아존중감	.98 (p= .21)	.109	1/273	.000	.109	.741
	사회적 자아존중감		.575	1/273	.002	.575	.449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1.795	1/273	.007	1.795	.181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1.768	1/273	.006	1.768	.185
	전체		.067	1/273	.000	.067	.796

\* p<.05

Wilks의 람다는 .98, 유의확률은 .21로 p<.05 수준에서 남편의 감정노출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시한 것처럼 남편의 감정노출 정도에 따라 즉, 남편이 부부 의사소통에서 높은 감정노출을 하는 경우와 낮은 감정노출을 하는 경우에 있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부 의사소통 시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감정노출 정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남편이 높은 감정노출 정도인 경우가 낮은 감정노출인 경우에 비해 자아존중감 전체 평균이 높았고,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의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아내의 감정노출 정도에 따른 각 집단의 사례수와 이에 해당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아내의 감정노출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종속변수	감정 노출	N	M	SD
총체적 자아존중감	높은 감정노출	238	3.76	.62
	낮은 감정노출	35	3.82	.67
	합계	273	3.77	.63
사회적 자아존중감	높은 감정노출	238	3.25	.62
	낮은 감정노출	35	3.37	.65
	합계	273	3.26	.63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높은 감정노출	238	3.82	.66
	낮은 감정노출	35	3.87	.67
	합계	273	3.83	.66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높은 감정노출	238	2.77	.60
	낮은 감정노출	35	2.88	.48
	합계	273	2.78	.59
전체	높은 감정노출	238	3.38	.47
	낮은 감정노출	35	3.47	.48
	합계	273	3.40	.47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감정노출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IV-12>와 같다.



<표 IV-12>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서 아내의 감정도출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에 대한 다변량분석

독립 변수	종속변수	Wilks의 람다	단변량F	자유도	$\eta^2$	단계적F	p
감정 노출 정도	총체적 자아존중감	.99 (p= .79)	.331	1/273	.001	.331	.566
	사회적 자아존중감		1.039	1/273	.004	1.039	.309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207	1/273	.001	.207	.649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1.119	1/273	.004	1.119	.291
	전체		1.086	1/273	.004	1.086	.298

\* p<.05

Wilks의 람다는 .99, 유의확률은 .79로 p<.05 수준에서 아내의 감정도출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내의 감정도출 정도에 따라 즉, 아내가 부부 의사소통에서 높은 감정도출을 하는 경우와 낮은 감정도출을 하는 경우에 있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부 의사소통 시 아내의 남편에 대한 감정도출 정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아내가 낮은 감정도출을 보이는 경우, 4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한 자아존중감 전체에서 전체 평균보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높은 감정도출을 보이는 경우의 자아존중감보다 더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 6.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의사소통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있어 남편과 아내 모두 억제형이나 차단형 보다는 친숙형 혹은 분석형으로 의사소통하였다. 이는 남편과 아내 모두 폐쇄적이기 보다는 개방적인 유형을 더 사용한다는 선행연구(원효중, 1984; 이기숙, 1988; Hawkins, Weisberg, & Ray, 1980)와 일치한다. 또한, 친숙형과 분석형을 기능적인, 억제형과 차단형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양식으로 볼 때 남편의 경우는 68.50%가 기능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31.50%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사용하며 아내의 경우는 81.32%가 기능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18.68%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과 아내 모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양식보다 기능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근후·이동원(1973), 김인숙(1987), 도미향·최외선(1990)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이다.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들(원효중, 1984; 송성자, 1985; 이창숙·유영주, 1988; Hawkins, Weisberg, & Ray, 1980)을 살펴보면, 그 유형은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차이를 보여준다(이정숙, 1991, 재인용)고 했다. 장휘숙(2008)도 남편과 아내는 지속적으로 의견이나 감정을 교환하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손실은 적고 보상이 큰 의사소통 패턴을 채택함으로써 성차를 나타낸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도 평균적으로 남편은 아내보다 차단형과 분석형을 많이 사용하고 아내는 남편보다 친숙형을 더 많이 사용했다. 이것은 아내는 감정적 대화를 많이 하고 남편은 실제적 대화를 많이 한다는 Balswick(1978)의 주장(이정순, 1982, 재인용)과 일치하며 원효중(198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정서 표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정서표현 자체를 약함의 표시라고 인식하고 정서 표현의 결과에 대해 더 부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정서 표현성이 높다는 연구(Gross & Harris, 1998)를 볼 때 정서 표현에는 성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이윤미, 2007, 재인용) 했는데 이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둘째, 언어적 표현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불일치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표현 정도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이 불일치할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부부 의사소통 시 감정도출 정도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이 불일치할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원효종(1984)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양식이 동일할 때에 즉, 부부간에 상호감정의 노출 및 개방성의 정도가 같을 때 부부간의 의사소통 불안의식이 가장 낮았다. 의사소통 불안의식은 자기표현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신뢰감도 감소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피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침묵을 지킴으로써 언어적 의사소통을 가능한 더 적게 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언어적 표현과 감정도출 정도에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불안의식이 높아져 부부간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이 감소하게 되고 결혼만족을 포함한 부부관계와 가정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나 이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부부 의사소통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 정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즉 남편이 아내와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적인 경우와 폐쇄적인 경우에 있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와의 의사소통시 언어표현 정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결혼만족도이다. 하지만 일관된 결론을 내기 어려워 새로운 부부관계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그리하여 부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남편이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내와 다른 양육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내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때 남편이 양육과정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양육참여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김희화, 2008).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아기의 효율적인 양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 Belsky와 Isabella(1985)의 연구, 부부간의 의사교환 수준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예측하는 요인임을 지적한 Urman-Klein(1983)의 연구결과도 이를 지지한다(허선자, 1992, 재인용). 이러한 의사소통 관계는 부부의 결혼만족과도 관련이 되고, 여러 선행연구(김이겸, 1994; 윤경화, 1992; 원유미, 1999; 박홍미, 2003; 이경화, 2005)에서와 같이 다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김현주·손정희(2009)의 연구에서도 자녀양육에서는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의 의사소통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쌍방 간의 합치된 올바른 의사소통 방식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 의사소통에서 보이는 남편의 언어적 개방성과 폐쇄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측면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권위적이었던 과거의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새로운 의미의 역할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 V. 요약,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본 연구는 부부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하고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관련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부 의사소통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선정된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5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 아버지이며 회수되지 않은 설문과 응답이 불성실하고 공백이 많은 설문, 아동과 어머니, 아버지 설문 중 하나라도 누락된 설문, 부부 중 한쪽이라도 의사소통 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선정된 273쌍(아동 273명, 어머니 273명, 아버지 2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사용된 도구는 의사소통 유형 측정 설문지와 자아존중감 검사지이다.

의사소통 유형 측정 설문지는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Hawkins, Weisberg 및 Ray(1977, 1980)가 개발한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6개의 질문을 기초로 원효중(1984)이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후 김인숙(1988), 김요완(2000) 등의 논문에 사용된 10문항의 부부 의사소통 유형 측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검사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Coopersmith(1967)와 Pope, McChale 및 Craighead(1988)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연구개발하고 전승배(2000)가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The Self Esteem

Inventory; SEI)를 사용하였다. 총 32문항이며 문항형태는 Likert식 5단계 평정척도로 되어있고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의사소통 유형은 친숙형 49.45%(135명), 분석형 19.05%(52명), 억제형 16.85%(40명), 차단형 16.85%(46명)였다.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은 친숙형 72.16%(197명), 분석형 9.16%(25명), 억제형 15.02%(41명), 차단형 3.66%(10명)였다. 남편과 아내 모두 억제형이나 차단형보다는 친숙형 혹은 분석형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나 폐쇄적이기 보다는 개방적인 유형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남편은 아내보다 차단형과 분석형을 많이 사용하고 아내는 남편보다 친숙형을 더 많이 사용해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언어적 표현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 언어적 표현 정도에 있어서 부부가 의사소통 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보다 불일치하는 경우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정도출 정도에 있어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사회적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 감정도출 정도에 있어서 부부가 의사소통 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보다 불일치하는 경우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남편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Wilks의 람다는 .21, 유의확률은 .02로  $p < .05$ 수준에서 남편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즉 남편이 아내와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적인 경우와 폐쇄적인 경우에 있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

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아내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Wilks의 랏다는 .98, 유의확률은 .37로  $p < .05$ 수준에서 부인의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남편의 감정도출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Wilks의 랏다는 .98, 유의확률은 .21로  $p < .05$ 수준에서 남편의 감정도출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아내의 감정도출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Wilks의 랏다는 .99, 유의확률은 .79로  $p < .05$ 수준에서 아내의 감정도출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결론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의사소통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억제형이나 차단형보다는 친숙형 혹은 분석형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부부간에는 감정표현이 많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폐쇄적인 의사소통 유형은 보다 적게 사용한다. 이는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이 됨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남편은 아내보다 차단형과 분석형을 많이 사용하고 아내는 남편보다 친숙형을 더 많이 사용해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가 존재한다. 남편은 논리적, 실제적 대화를 많이 하고 아내는 감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언어적 표현 정도에 있어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보다 불일치하는 경우가 아동의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

따라서 부부 의사소통 시 언어적 표현 정도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이 다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감정노출 정도에 있어 부부 의사소통 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보다 불일치하는 경우가 아동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 따라서 부부 의사소통 시 감정노출 정도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이 다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남편의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다. 즉 남편이 아내와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적인 경우가 남편이 아내와의 의사소통에서 폐쇄적인 경우보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의미있게 높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와의 의사소통시 언어표현 정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다. 즉 아내가 남편과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적인 경우와 폐쇄적인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과의 의사소통시 언어표현 정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남편의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감정노출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다. 그리고 아내의 의사소통 유형에 나타난 감정노출 정도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다. 따라서 부부 의사소통 시 남편과 아내의 감정노출 정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해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부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부로서의 역할 또한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3.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부부 의사소통이 결혼만족을 포함한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실제적으로 검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부부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심층적이며 실질적인 연구를 위해 보다 많은 부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표본의 규모를 보다 크게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부부 의사소통 유형을 자료화함에 여건상 설문지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관찰 및 면접 등을 통한 실질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자녀의 긍정적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 바람직한 부부관계와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부부교육과 부부 의사소통 및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실행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강나정(200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진(2008). 교육연극을 적용한 도덕수업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치화(1985).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과 결혼만족과의 관계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2009).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용신(2001).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갑숙·최외선(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33-143.
- 김민녀(2004). K-MSI를 활용한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빈(1994). 가족 및 부부관계와 자녀의 심리적인 특성.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경(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51-372.
- 김영숙(1997).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 주는 가정환경의 제 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오남(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 스트레스.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요완(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성 지식 수준의 성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심(1988).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부인의 정신·신체증상 호소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08). 정서조절, 의사소통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이겸(199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화목정도와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1988).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 제차원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이서원(2001).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정폭력 : 빈곤가구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과 아내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 2001. No. 10.**
- 김쟁산·전영수(1983).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9, 90-99.**
- 김현주·손정희(2009). 부-모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 22집.**
- 김희화(2008). 아버지의 부부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Vol. 29 No. 9.**
- 도미향·최외선(1990).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과 부부간 의사소통양식 및 그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 박경애·조은경(1997). 청소년의 행복도 : 우리 청소년, 얼마나 행복한가?. 한국청소년 상담원.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19.**
- 박민주·황기아(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10(2), 43-51.**
- 박연호(1980). **인간관계론**. 서울 : 박영사.
- 박영립(2001).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애착, 부모갈등 지각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화·고재홍(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흥미(2003).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도희(역)(2009). **부부의 사생활**. Tony Humphreys의 *Myself, My Partner*. 서울 : 다산초당.

- 백종순(2008).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경애(1993).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 정도와 유형에 관한 연구 : 감정의 언어적 자기노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경애·김순옥(1994).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 정도와 유형에 관한 연구 : 감정의 언어적 자기노출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93-103.
- 서수경·이정덕(1991). 부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존감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 서해광(1985). 자기표현 훈련이 시험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달임(2008). 갈등적 대화의 원리와 구조 연구 :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녀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Vol. 26.
- 송말희(1986). 도시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말희·이정우(1986). 도시 부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 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 송성자(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숭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성자(1994).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 : 홍익제.
- 신미경(2008). 교과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대구한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윤희(2007). 초등학생들의 문제행동과 관련요인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주이(2008). 교육연극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홍민(역)(2008). **부모와 아이사이**. Dr. Haim G. Ginott의 Between Parent And Child. 서울 : 양철북.
- 오경희(1997). 의사소통 양식, 의사소통도 및 결혼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01-220.

- 오옥선(2009).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우섭(2010).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 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유미(1999). 부모의 양육태도, 결혼만족도, 의사결정 유형과 자녀특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효종(1984). 부부간의 의사소통 양식과 의사소통 불안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시순(2003). 기혼노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양순미(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 농촌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121-134.
- 윤경화(1992). 유아의 자아개념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영삼(역)(2010). **가족의 심리학**. Tony Humphreys의 Leaving The Nest : What Families Are All About. 서울 : 다산초당.
- 윤향미(2008). 방과 후 프로그램의 저소득층 자녀 자아존중감 향상 효과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혜미·류나미(2007).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초등학생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3, 215-236.
- 윤혜영(2000).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호균·이선희(2000). 부부의 MBTI성격유형의 유사성과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지**, Vol. 17, No 1, 1-21.
- 이경화(2005).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근후·이동원(1973). 도시 가족내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논총 제 22집**.
- 이기숙(1988). 가족 주기에 따른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6(1), 1-26.

- 이순재(199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미(2007). 부모의 정서표현 및 아동의 정서조절과 아동의 학교적응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1982).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일연구 : 일치도와 이해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연(2008). 내면화된 수치심과 방어유형, 정서표현의 관계. *상담학연구*, Vol. 9, No. 2, 353-373.
- 이창숙·유영주(1988). 한국남편과 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 : 서울시 거주 남편과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25.
- 이혜경(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 부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미경(2008).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승락(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 만족 : 성차, 요구입장 차이 및 성격 특성의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아·이인수(2006).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연구. *아동교육* 15(2), 37-62.
- 장휘숙(2008). *가족심리학*. 서울 : 박영사.
- 전귀연(1984). 아동의 성 역할 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구순주·박경란(1998).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가족복지연구*, Vol. 2, 1-23.

- 전길량·김태현(1988). 자기개방과 부부적응에 관한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3), 209-224.
- 전승배(2000).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학습태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미(1995).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과 결혼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미·김명자(1996).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47-64.
- 정현숙(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9권 12호, 205-224.
- 정화용(2000).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박경(역)(2008). **환상적인 가족만들기**. Nick & Nancy Stinnet·Joe & Alice Beam의 Fantastic Families. Howard Publishing Co. 서울: 학지사.
- 조영란(1993). 부부의 갈등과 자녀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지은(2005). 기혼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 부부기전이 부부를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흥식(1999).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청소년복지의 한계. **청소년연구**, 6(2), 1-19.
- 차배근(1982).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서울 : 세영사.
- 최규련(1994). 한국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보가·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제 31권 2호.
- 최애나(2007). 음악치료가 소득계층별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창섭(1993).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총론**. 서울 : 성바오로출판사.
- 하수정(2008). 인지상담을 통한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관한 사례

- 연구.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자(2001). 협동학습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주리·허경호(2004). 가족 의사소통 패턴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노출, 내적 통제성 및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9(5), 202-228.
- 함자영(2005).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감정표현 불능증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정(2006).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의한 가족의사소통 효율성 향상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dams, B. N.(1980). *The family -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3th Ed.). 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301-303.
- Balswick, Jack.(1978). *I want to say I love you*. Texas : Waco Inc.
- Beck, A. T.(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 New Perspectives. In P. J. Clayton & J. E. Barrett(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New York : Basic Books.
- Belsky, J. & Isabella, R. A.(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to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342-349.
- Bichoff, G. P., Stich, S. M., & Wilson, S. M.(1992). A comparison of the family systems of adolescent sexual offenders and nonsexual offending delinquents. *Family Relations*, 41(3), 318-323.
- Bienvenu, M. J.(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26-31.
- Boyd, L. & Roach(1977).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differentiating more satisfying from less satisfying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1, 540.
- Branden, N.(1994). *The six pillars of self-esteem*. New York : Bantam Book.



- Brunworth, B. J.(1982). The efficacy of a marriage enrichment weekend only SV. a marriage enrichment plus follow-up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 Christensen, A.(1988). Dysfunctional interaction patterns in couples. In P. Noller & M. A. Fitzpatrick(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31-52). Cleved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 Christensen, A., & Heavey, C. L.(1990). Gender and social structure 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3-81.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 esteem*. San Francisco : W. H. Freeman and Company.
- Coopersmith, S.(1981). SEI : Self-Esteem Inventories. To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Derlega, V. J., Metts, S. & Margulis, S.(1993). *Self-disclosure*. Newbury Park, CA : Sage.
- Edwards, K. H.(1980). Understanding, communication and cognitive homeostasis,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Washington.
- Erickson, E. H.(1959). Identity and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Vol.1, no.1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Farthing, E. D.(1984). *A course of study in marriage enrichment program for couples in a church*.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 Fogarty, T. F.(1976). Marital crisis. In P. J. Guerin(Eds.),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pp. 325-334). New York : Gardner Press.
- Gelman, R., McGinley, H.(1978). Interpersonal lifing and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 Clinical Psychology*, 46(6), 1549-1551.
- Gottman, J. M.(1995). *Why marriages succeed or fail*. New York : Simon and Schuster.
- Gottman, J. M. & Notarius, C. L.(2000).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 NY : Crown Publisher.

- Gross, D. & Harris, P. L.(1998). False beliefs about emotions : Children's understanding of misleading emotions display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1(3), 475-488.
- Haltiwaner, J.(1995). Relations between dimensions of parenting and presented self-esteem in young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275-385). New York : John Wiley.
- Hawkins, J. L., Weisberg, C., & Ray, D. L.(1977).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 Hawkins, J. L., Weisberg, C., & Ray, D. L.(1980). Spous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 :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585-593.
- Hicks, M. W. & Platt, M.(1970).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 A review of the research in the six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561.
- Hood, T. C., Back, K. W.(1971) Self-disclosure and the volunteer : a source of bias in laboratory experiment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17(2), 130-136.
- Jourard, S. M.(1971). *The transparent self*. New York : Van Nostrand.
- Jourard, S. M.(1974). *Healthy Personality*, N. Y.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Jourard, S. M. & Lasakow, P.(1958). Some factors in self-disclosur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6(1), 91-98.
- Landy, S.(2002). *Pathways to competence: Encouraging healthy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Baltimore : Paul H, Brookes.
- Levenson, R. W., & Gottman, J. M.(1985). Physiological and affective predictors of change in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49, 85-94.*
- Lewis, R. A. & Spanier, G. B.(1979). Theorizing about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1)*. New York : Free Press.
- Mehrabian, A.(1971). *Silent message*. Belmont, California : Wadsworth.
- Napier, A. Y.(1978). The rejection-intrusion patterns : A central family dynamic.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4, 5-12.*
- Navran, L.(1967).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in marriage*, Family Press, 6, 173-184.
- Noller, P. & Fitzpatrick, M. A.(1991). Marital communication. In *Contemporary families :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edited by A. Booth. Minneapolis :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Pope, A. W., McChale S. M., & Craighead W. E.(1988)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Pergamon Press.
- Reasoner, R. W.(1982). Building self-esteem.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 :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6)*, 1004-1018.
- Rubin, L. B.(1983). *Intimate strangers: Men and women together*. New York : Harper & Row.
- Satir, V.(1972). *Peoplemaking*. Palo Alto, Calif. : Science and Behavioral Books, Inc.
- Solano, C. H., P. G. Batten, & E. A. Parish(1982). Loneliness and pattern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3, No. 3*, 524-531.
- Stanley, S. M., Markman, H. J., & Whitton, S. W.(2002). Communication, conflict, and commitment : Insights on the foundations of relationship

- success from a National Survey. *Family Process*, 41(4), 659-675.
- Littlejohn, S. W.(1982). An Overview of contributions to human communication theory from other disciplines, in Frank E. X. Dance(ed), Human communication theory, Haper & Row, Publishers, Inc, New York.
- Tannen, D.(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New York : William Morrow, Ballantine.
- Urban, D.(1980). *The short-term effect of a marital enrichment program on couple commun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 Urman-klein, P.(1983).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Fathers in Dual-Career Families with One Preschool Chil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Ann Arbor, MI : A Bell & Howell Information co.
- Vincent, J. P., Friedman, L. C., Nugent, J., & Messerly, L.(1979). Demand characteristics in observations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557-566.
- Worth, M., Gary, A. L., Kahn, G. M.(1969). Self-disclosure as an exchange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59-63.
- Wylie, R. C.(1979). *The self-concept, vol. 2 :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Abstract>

**A Study on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elf-esteem of the Children**

**Oh, Hyun-ju**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ung-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sup>2)</sup> is to clarify as to by which style the marital communication is actually taking place and whether there is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elf-esteem of the children while the following study questions have been set up to make this possible.

First, how is the communication style between husband and wife in marital communications?

Second, is there difference in the self-esteem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marital communication style?

This study has targeted 273 children in fifth and sixth grade of 5 elementary schools within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273 mothers and 273 fathers. In order to measure the marital communication styles, the marital communication style questionnaire of 10 questions used by Kim, In-sook(1988) and Kim, Yo-wan(2000)

---

2) This thesis is a master's thesis in education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ommittee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n August, 2010.

after being developed by Hawkins, Weisberg and Ray(1977, 1980) as well as being revised and improved by Won, Hyo-jong(1984). In order to measure the self-esteem, a self-esteem scale with a total of 32 questions used by Jeon, Seung-bae(2000) after being researched and developed by Choi, Bo-ga and Jeon, Gui-yeon (1993) by referring to the research of Coopersmith(1967) and Pope, McChale and Craighead(1988) was used. For all gathered data, the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multi-variate analysis have been performed using SPSS WIN 15.0.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oth husband and wife use more of open styles and emotional exposure rather than the closed style and emotional suppression as they communicate with contactful or speculative style rather than controlling or conventional style. But a difference exists between husband and wife for the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s the husband uses more of controlling and conventional style than the wife while the wife uses more of contactful style than the husband.

Second, a child's social-peer self-esteem and home-parents self-esteem are higher in case the marital communicational style doesn't correspond in the level of verbal expression than in case of corresponding.

Third, a child's social-peer self-esteem is higher in case the marital communication style doesn't correspond in the level of emotional exposure than in case of corresponding.

Fourth, there is difference in a child's self-esteem according to the level of husband's verbal expression shown in the marital communication style. Looking by sub-factors, there is difference in the global self-esteem, social-peer self-esteem and school-academic self-esteem. But there is no difference in a child's self-esteem according to the level of wife's verbal expression shown in the marital communication style.

Fifth, there is no difference in a child's self-esteem according to the level of husband's emotional exposure shown in the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lso, there is no difference in a child's self-esteem according to the level of wife's emotional exposure shown in the marital communication style.

So, the husband and wife have to be aware of the fact that they have difference in their communication style and need to make effort to understand this difference. Also, because the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ct as an important factor having influence on a child's self-esteem, it would be necessary to aware of the fact that the role as a married couple is also important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a child including self-esteem.



## 부 록

<부록 1> 차아존중감 검사지 .....	65
<부록 2> 부부 의사소통 유형 측정 설문지 .....	67





## < 자아존중감 검사 >

이 검사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검사지에는 정답이나 틀린 답이 없으며 좋은 답과 나쁜 답도 없습니다. 또한 학교성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집니다.

따라서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만 솔직하고 정확하게 대답하**됩니다. 만일 그 글의 내용이 자기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쪽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는 내용은 연구 목적 외의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보기

예를 들어 '나는 모든 일에 항상 자신이 있다'라는 질문에 자기 자신이 '보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해당하는 칸에  표를 합니다.

번 호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모든 일에 항상 자신이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의사항

1. 시간제한은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읽고 답해 주십시오.
2. 한 문제에 한 군데만 표시하고, 한 문제도 빠짐없이 모두 답해 주십시오.
3. 답한 것을 고칠 때에는 먼저의 답을 지우고 다시  표를 하십시오.
4. 말의 뜻이 어려우면 선생님께 질문하십시오.

문항 번호	문항내용	JEJU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2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3	부모님은 내 기분을 잘 맞춰 주신다.					
4	나는 학교에서 실망하는 일이 가끔 있다.					
5	나는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6	나는 친구들이 많다.					
7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8	내가 원하는 만큼 학교생활이 원만치 않다.					
9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할 수 있다.					
10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문항 번호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1	나는 집에서 상당히 행복하다.					
12	나는 학교에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다.					
13	내 문제는 주로 내가 해결 할 수 있다.					
14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					
15	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진다.					
16	선생님은 나를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17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18	나는 남을 재미있게 해 주는 사람이다.					
19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					
20	나는 학교 성적에 실망이 된다.					
2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22	나는 남에게 좋은 친구이다.					
23	우리 가족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					
24	나는 학교에서 하는 일이 서툴다.					
25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을 귀담아 들어준다.					
26	나는 좋은 아들(딸)이다.					
27	내가 좀 더 나은 학생이면 좋겠다.					
28	친구들은 주로 내 생각에 따른다.					
29	나를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신다.					
30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내가 좀 더 잘 이해하면 좋겠다.					
31	나는 원하면 항상 친구를 사귄다.					
32	나는 우리 가족 중 중요한 사람이다.					

<부부 의사소통 유형 측정 설문지>

## 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를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공하시는 자료는 부부관계 향상과 자녀의 성장을 위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절대 비밀로 취급되며 다른 응답자의 답과 합쳐져서 분석될 것입니다. 작성된 설문지는 2010년 2월 28일 까지 폐기처분되며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설문에는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으며, 질문에는 옳거나 그릇된 답이 없습니다.

설문 응답 시 배우자와 의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답해 주시길 바라며 한 문항이라도 기록이 빠지면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해주시는 자료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설문지 2부가 있으니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모두 설문에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에는 귀하와 귀하 배우자 설문을 같은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자녀 편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오현주

☒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문항 ( )에 ○ 표 하거나 직접 적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 )            ② 여 ( )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3. 귀하의 학력은?  
    ① 중 중퇴, 중졸( )            ② 고 중퇴, 고졸( )  
    ③ 대 중퇴, 대졸( )            ④ 대학원졸 이상( )
  
4. 귀하의 직업은?  
    ① 무직  
    ② 전업주부  
    ③ 생산직, 단순 노동직  
    ④ 상업 서비스, 숙련 기술직(운수업, 소규모 상업, 보험 설계사) 등  
    ⑤ 일반 사무직(회사원, 일반공무원, 교사) 등  
    ⑥ 관리직(사업체 간부직, 고급 공무원) 등  
    ⑦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기업주) 등  
    ⑧ 기타 : \_\_\_\_\_
  
5. 귀하의 주거지는?  
    ① 제주도    ② 제주도 읍·면 지역    ③ 서귀포시    ④ 서귀포시 읍·면 지역
  
6. 귀하의 결혼 기간은?            \_\_\_\_\_ 년
  
7. 귀하의 자녀수는?  
    ① 1명            ② 2명            ③ 3명 이상
  
8. 귀하의 월평균 수입은?  
    ① 없다    ② 50만원 이하    ③ 50~100만원    ④ 100~150만원  
    ⑤ 150~200만원    ⑥ 200~300만원    ⑦ 300~500만원    ⑧ 500만원 이상

☒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 배우자와 어떻게 대화하시는지에 관해서 알아보  
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평소 자신의 행동과 가장  
일지하는 것을 하나만 골라 해당번호에 ○표로 답해 주십시오.

**1. 때때로 집안일이나 자녀들의 일로 걱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말하지  
않는다.
- ② 걱정하고 불안해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 ③ 걱정스럽거나 불안한 표정을 보이지 않으며, 주로 문제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 ④ 무척 걱정스러워하면서 나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얘기하고 그 문제거리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2. 배우자가 귀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줬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어떻게 하십니까?**

- ① 다른 집 얘기를 하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상대의 무관심에 투덜대기도 하  
지만 내가 원하는 것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 ② 아쉽거나 섭섭한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얘기한다.
- ③ 내가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필요한  
것을 상대에게 구체적으로 부탁한다.
- ④ 바라는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 말 하지 않는 다.

**3. 가끔 배우자가 직장생활이나 사업/집안 일 등에 관한 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문제에 관해서도 잠잠히 지켜만 본다.
- ② 걱정스러워 하지만 문제에 대해서 묻거나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 ③ 얼마나 걱정스러워 하는 지를 말하면서 배우자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함께  
얘기한다.
- ④ 걱정스러운 표정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문제에 관해 묻거나 내 생각을 자  
세히 얘기한다.

**4. 배우자와 함께 진지를 초대하고 대접하는 문제나 함께 외출하는 문제 등을 의논할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 ① 내 기분이나 의견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
- ② 의견이 다를 때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 ③ 속상해서 화를 내고 불평은 하지만, 상대의 생각을 자세히 묻거나 내 의견을 말하지는 않는다.
- ④ 흥분하지는 않지만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자세히 얘기하고 의견을 물어 보기도 한다.

**5. 때로 본가·저가식구들(시댁·친정 식구들)과의 문제로 괴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이것저것 흠을 잡아서 투덜대거나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문제를 직접 얘기하거나 함께 의논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별 말 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낸다.
- ③ 기분을 표현하지 않고, 문제 자체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고 배우자의 의견을 묻는다.
- ④ 현재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면서, 그 문제에 관해 자세히 얘기한다.

**6. 배우자가 귀하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하거나 말을 해서 기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어떻게 하십니까?**

- ① 그냥 덤덤하게 있다.
- ② 기뻐하고 배우자에게 잘 해 주지만, 직접적으로 고맙다고 얘기하기는 쑥스러워한다.
- ③ 내가 얼마나 기쁘고 고마워하는지 말하고, 그 일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 ④ 기쁜 감정을 자제하면서 그 의도에 대해 묻는다.

**7.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끔 외롭거나 우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어떻게 하십니까?**

- ① 나의 외롭거나 우울한 감정을 말하고 겪은 일과 문제를 모두 얘기한다.
- ② 우울한 기분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문제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한다.
- ③ 배우자 앞에서 우울해하기는 하지만, 문제들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는다.
- ④ 되도록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8. 배우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
- ② 약간 짜증을 부리지만 많은 얘기는 하지 않는다.
- ③ 배우자에게 화를 내지는 않는다. 다만, 배우자가 행한 일에 대해 내 생각을 말한다.
- ④ 무척 화가 난다는 것을 말하고, 그 일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얘기한다.

9. 때때로 배우자가 무척 피로해 보이거나 건강이 나빠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어떻게 하십니까?

- ① 걱정스러워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건강문제나 근황에 대해 함께 얘기한다.
- ② 근심하는 표정을 나타내지 않지만, 건강문제나 근황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고 의견을 묻는다.
- ③ 평소와 별 다른없이 지낸다.
- ④ 무슨 일일까 혼자 걱정하고 근심한다.

10.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배우자가 무척 화가 나 있으리라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어떻게 하십니까?

- ① 모른척하고 그냥 지낸다.
- ② 미안하고 속상한 감정을 얘기하고, 배우자의 생각을 묻는다.
- ③ 눈치를 보고 찢찢매기도 하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부담스럽다.
- ④ 미안한 기색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결과에 대해 관심있는 분은 아래에 전화번호나 메일주소를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